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하영섭

2023년 8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성 봉

하 영 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6월

하영섭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보영 
위 원 박정환 
위 원 김성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년 6월

<국문초록>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하 영 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매년 6~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으며 대략 전체 초중고생 나이에 해당하는 만6-18세 인구의 10~15% 수준으로 전체 50~60만 명가량이 학교 밖 청소년 인구로 추산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기로 이에 따라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여러 학교 밖 청소년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국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중단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

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개요 및 절차,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연구에 인용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렸고 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IRB 심의를 받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으며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범주화하고 분류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이전과 중단과정, 중단 이후의 생활 경험과 삶의 만족도라는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범주의 관련성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결과 학교중단 이전과 중단과정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대인관계에 대한 갈등,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감, 진로에 대한 고민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고 중단 이후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 미래에 대한 계획, 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키워드별로 분류하였을 때는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대인관계, 진로와 직업, 학습과 학업, 정서와 심리, 복지와 사회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었고 이들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학교중단 이전과 중단과정, 중단 이후의 경험을 통해 각 단계나 유형에 맞는 적절한 개입전략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돕고 그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학교 밖 청소년, 생활경험, 삶의 만족도, 현상학적 방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청소년의 발달 과정	8
2.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실태	11
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	14
4.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18
III. 연구방법	21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21
2. 연구방법론	23
3. 자료 분석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V. 논의 및 제언	65
VI. 참고문헌	70
Abstract	78
부록	80
부록 1. 심층 면접 질문지	80
부록 2. 연구 참여 동의서	83

표 목 차

표IV-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IV-2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 내용 하위요소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학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뜻한다(조진욱, 명소연, 2016). 특히 코로나 19로 학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학생의 가정 배경, 친구 관계, 심리 상태, 생활 태도, 장래 포부 등 한 인격체로서 학생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육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게 되었다(이경은, 2022).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인 학생, 즉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기는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 정체감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박재홍, 김성환, 2011).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다(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적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하며(박근수, 김민, 2016), 사회적응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한다(이상중, 이수경, 2013). 기존의 논의들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상당한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학업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학업중단에 관심을 가지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려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현재 정부에서는 신중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학교를 떠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거나 자발적 학업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내 대안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로 지정하여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즉, 학업중단이 청소년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청소년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왜 안전한 학교에서 떠나는 것일까?’, ‘과연 무엇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일까?’, ‘청소년은 학교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가?’,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박병금, 노필순, 2016).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 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을 찾고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와 복지 지원을 강조하거나(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과정, 사회적응, 학업 복귀 과정 등에 대한 각각의 경험을 담은 질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김상현, 양정호,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조아미, 이진숙, 2014),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 캠프 또는 자립 등에 대해 논의(박창남, 2010)를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첫째, 설문 조사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연구를 보고하거나 일반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교하는 양적 연구(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와 현장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후 비행, 우울, 불안(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성매매 혹은 성폭력(성운숙, 박병식, 박나래, 2009), 학업중단 이전에 문제행동을 했었는지 또는 학업중단 후 문제행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연구(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들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문제아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둘째, 설문조사와 양적 연구를 혼합하여 보고한 연구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후 재비행에 관한 연구이며, 연구대상도 서울, 경기도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21명 중 18명이 대안학교 소속이므로(조아미, 이진숙,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편중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질적 연구들은 학업중단의 결정 과정(이주연, 정제영, 2015), 복교 후 경험(김상현, 양정호, 2013),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김영희, 최보영, 2015), 또는 학업 포기과정(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등의 경험에 한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일반 청소년과 다른 점, 중단 후 대안학교로 옮겨간 학생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업중단의 이유와 학교 복귀에 관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부터 학교를 떠난 이후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중에는 배움을 지속하고 있거나, 진학 또는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학업형’과 ‘취업형’의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이 가장 많다는 연구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는 동기나 이후의 생활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을 학교를 떠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관한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것을 결심하고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생활에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들이 느끼는 지원과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학교를 떠나기로 하기까지의 동기와 학교 밖 생활 등이 더 심층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모색과 함께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는데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어온 다양한 생활경험들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여러 생활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도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고 단편적으로가 아닌 입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깊이있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만족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파악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학교중단 이전과 중단과정, 중단 이후에 겪었던 생활경험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대처하였는지를 통한 과정과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탐색하고 인터뷰 내용을 키워드별로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부정적, 긍정적 경험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며 밖에서의 생활과 삶의 만족도 역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까지의 삶의 경험들에서 느꼈던 점이나 힘들었던 부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본 연구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며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이다.

3. 용어의 정의

가. 청소년

청소년이란 어른(청년)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로서, 청소년에 대한 나이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란 9-24세 사이 장기결석, 취학의무 유예,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초, 중, 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자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개념 정의에 차이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로 ‘중퇴 청소년’,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학교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교 거부 청소년’ 등의 개념들로 다양하게 사용됐으며 2002년 교육부는 이들을 통칭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명명하였다. (박병금, 노필순, 2016)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둔 것은 아니라는 긍정적 시각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박근수, 김민, 2016), 관련법의 명칭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공포일, 2014.05.2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다. 생활경험

생활경험이란 생활 속에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았던,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금까지의 삶에서 겪어왔던 모든 경험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고자 한다.

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고 삶의 질,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혼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개인의 현재 상태에 관한 자기 인식을 강조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을 모두 내포하는 개념이다. 삶의 만족도에는 삶의 변화를 향한 열망, 현재의 삶에 관한 만족감, 과거에 관한 만족감, 미래에 관한 만족감이 포함되고 본 연구에서는 생활경험에서 비롯된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발달 과정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 하나로, 물리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며, 이 시기에는 자아개념이 발달하고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이 함께 진행된다.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며, 사회적 관심과 인기 등이 중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기의 경험이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옥분, 2019).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자 성적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를 시도한 사람인 미국의 심리학자 Hall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묘사하였다. 그는 청소년기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비롯된 혼란과 긴장 상태가 청소년을 질풍노도의 시기로 이끌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동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함을 지적하면서 청소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박재홍, 김성환, 2011).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토대로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는 인간의 발달과 깊이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에릭슨의 발달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말한다. 이 중에서 청소년기 단계는 정체성 형성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자기 개념과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태도 등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과 상황들은 이러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민경, 김보기, 2013).

브룬펜브레너의 인간발달 생태학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물학적, 개인적, 문화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발달한다고 한다(이숙정, 2019).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는 이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되며, 주변 환경과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기의 스트레스가 후기 청소년기 청소년들의 심리적 증상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청소년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지위비행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즉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심리적인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며 이것이 추후에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문화나 정치적 환경과 같은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은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가족간 유대가 청소년의 사회화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고 가족간 유대는 상호 지원, 일반적 상호의존성, 감정적 친밀성 등을 포착하는데,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는 더 넓은 범위의 대인 관계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긍정적인 동료관계도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데, 동료관계를 통한 사회적 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엇보다 동료관계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친밀한 동료관계는 다른 이들과 협력하고 갈등을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맥락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간 유대와 마찬가지로 동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일반적인 사회 관계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큰 사회참여로 발전할 수 있다(김위정, 2012).

그리고 청소년 발달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의 활동과 경험들은 발달과 흥미, 자발성 등의 개인적 특성, 문제예방이나 사회성을 길러준다는 사회적 기능, 역량개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며(주계순, 권일남, 2018),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고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사회화 과정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분석해보았을 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에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과업이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기도 하고 특히 주변 환경이나 상황, 대인 관계 등 여러 요소에 쉽게 휩쓸리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과 실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 연구하기에 앞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의 정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현재 규정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혹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상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수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산하는 공식적인 수식은 없고 국가교육통계센터 ‘학업중단 현황’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전체 학령기 청소년 수에서 재학생 수와 해외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수를 제하는 식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2016년 608만8827명에서 2020년 545만2805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2016년 4만7070명이었던 학업중단 청소년은 2020년에는 5만226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16년 1.4%에서 2020년 1.7%로 증가했는데,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의 증가는 ‘기타 사유’에 의한 자퇴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고, 그다음은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높았다(여성가족부, 2018).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고민을 의논한 상대는 부모, 친구, 학교 선생님 순이었지만 10명 중 1명 이상이 ‘의논 상대가 없었다’라고 응답했다. 그만둔 후 후회하는 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높았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였다(여성가족부,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학교밖청소년법)’에 따라 국가와 각 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전국 220여 곳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청소년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비해 지원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꿈드림 센터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19년 4만8250명에 불과했다. 꿈드림 센터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나은 환경에 있는 편이고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청소년들은 센터에 다닐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관계부처합동, 2015).

청소년들이 생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꿈드림 센터에 다닐 수가 없고, 꿈드림 센터가 거리상 너무 멀고 교통비 등이 여의치 않아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불이익도 있었는데,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를 알지 못해 성인요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여성가족부, 2018). 또, 버스 승차나 공원 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했다거나, 공모전 참가 제한, 취업 자격 제한, 대학 진학 시 내신 관련 제한을 받는 예도 있었다(김정희, 김광병, 2020).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소년증 발급 건수는 18만 2644건이다(여성가족부, 2018).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급 받은 건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학업중단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며, 학교중단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쉼터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박병금, 노필순, 2016).

그러나 아직도 학교를 떠나려는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학교 안에서의 실질적 지원과 예방 프로그램은 없으며, 학교현장과 학교 밖 지원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조가 부족하여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박병금, 노필순, 2016).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사람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무시가 가장 높았고 진로 찾기의 어려움, 무기력함, 부모와의 갈등, 일을 구하기 어려움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지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중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는 원인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심을 두고 학교 밖 생활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을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거라 보고 학교에 머물게 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결심을 하고 학교를 떠난 후 살아가는 과정의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 연구들이 청소년이 학교를 나오게 되는 요인과 부정적인 학교 밖 생활을 지적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오는 전반적인 과정과 경험의 현상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느낀 삶의 만족도에 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유연한 태도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결심을 하고, 학교를 떠난 후 살아가는 과정의 경험의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각각 학교를 떠나기 전, 학교를 떠나는 과정, 학교를 떠난 후의 경험들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

생활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뜻하는데 이런 삶의 생활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겪어온 과정이 전부 다르므로 자신에게 없는 경험도 존재하며, 그렇기에 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박병금, 노필순, 2016).

이러한 생활경험들은 각자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경험만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부려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잦고 경험은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김현주, 박재연, 2019).

그렇기에 생활경험을 기록하고 다양한 생활경험을 바라보며 이들을 이해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들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룬 연구가 잘 없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왜 이들이 학교를 관두는지, 어떤 고충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지 이해하고 납득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남부현, 2021).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경험을 겪었는지 파악하고 연구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생활경험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단면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심층적으로 이들이 겪는 생활경험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은 부정적,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크게 학교를 떠나기 전, 학교를 떠나는 과정, 학교를 떠난 이후의 생활경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학교를 떠나기 전의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의 힘들, 차별하는 선생님, 서로 괴롭히는 친구들, 짜증나게 하는 부모님으로 나타났다(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이끌어 주어야 할 선생님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라고 느껴졌으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하기도 이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아로 찍혀 학교를 떠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명소연, 조진옥, 2016).

온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공부 위주 교육의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답답하게 느낀 경우도 많았다(박병금, 노필순, 2016).

함께 어울리며 지내야 하는 친구들로부터는 폭력과 왕따를 경험하였고, 친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함을 경험하였다. 초등학교 때 시작된 왕따가 중학교까지 이어졌던 청소년,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왕따를 당한 청소년도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선생님께 도움을 받길 원했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생님은 참으라고 하거나 모른척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복학생이라는 이유와 외모가 성숙해 보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가했다고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학교생활에서 선생님, 규칙, 친구들과의 관계로 힘들었지만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이혼, 폭력, 무관심으로 청소년들은 더욱 힘들었다. 성적이 떨어지자 심하게 화를 내신 부모님도 있었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부모 또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여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박근수, 김민, 2016).

학교를 떠나는 과정에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다른 학교로 전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퇴를 생각하게 된 청소년도 있었고, 다른 친구를 괴롭혀 학교에서 ‘잘린’ 청소년도 있었다. 학교를 떠난다고 했을 때 눈물로 붙들고 무단결석을 조퇴로 바꾸어 퇴학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신 선생님도 있었고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을 힘들게 한 선생님도 있었지만, 떠난다고 할 때 붙잡아주고 학교 그만두기를 잘 생각해보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준 선생님도 있었다(이주연, 정제영, 2015).

학교 밖 청소년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학교중단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본인의 의지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 적극적, 자발적으로 학교를 중단한 경우와 부등교가 장기화되거나 외부 여건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중단한 경우로 구분되며, 이는 학교중단 주체에 따라 학교를 ‘때려친 아이’와 학교에서 ‘쫓린 아이’로 표현되기도 한다(성운숙, 박병식, 박나래, 2009).

학교중단 결정의 동기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청소년 스스로 학교를 벗어난 자발적 중단 청소년들이 증가한 것으로 논의되는데(김영희, 2015), 이처럼 자발적인 중단 현상은 전통적인 유형에 대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서 오히려 긍정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학교를 떠난 후로는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막살았다고 응답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학교를 떠나 학교규칙으로 인한 답답함을 풀고자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염색, 옷차림을 해보거나 학교에 간 친구들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였다. 또한, 여행도 다니고 더욱 행복해짐을 경험한 청소년도 있었다(박병금, 노필순, 2016).

가족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고 가족여행도 다니고 행복해졌다고 하는 청소년과 반면 여전히 가정폭력이 있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청소년들도 있었고 미워하고 부딪히기만 했던 가족이지만 학교를 그만둔 후 밝아진 청소년들을 보면서 가족들도 기뻐했고 언제부터인가 가족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폭력을 가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지속해서 벽을 쌓고 지내는 청소년도 있었다(김현주, 박재연, 2019).

학교를 떠난 후 학교 친구들과는 전혀 만나지 않는 청소년이 있었고, 학교 친구들과 지속해서 연락하고 만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비슷한 상황(자퇴)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청소년들도 있었다(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생활이 정말 힘들어서 학교 밖으로 나와 보니 이 세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혼자 헤쳐나가야 할 생활도 있고, 학생이지만 학생이 아닌 위치로 인해 혼돈을 겪기도 하였다. 자퇴 후 시작할 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어떤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정보를 찾기도 힘들었다는 청소년도 있었고 막상 학교를 떠나보니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는 청소년도 있었다(김현주, 박재연, 2019).

이러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여러 생활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유추해보고 짐작하여 이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생활경험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더욱 심층적으로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 심리, 힘들었던 점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한 가지의 비슷한 경험만 한 것이 아닌 각자가 다른 생활경험들을 겪어 온 만큼 자세한 생활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학교를 관두고 나서 더욱 행복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있었고, 학교를 떠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다고 토로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박병금, 노필순,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 학교 안으로 복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고된 것도 있지만(김상현, 양정호, 2013), 청소년들이 학교중단에 대해 후회하며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는 학교중단에 대해 만족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연, 정제영, 2015).

이는 최근 자발적으로 학교중단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유형이 다양화되면서, 학교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또한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중단 이전, 중단과정, 중단 이후 삶의 만족도가 일반화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느끼는 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를 떠난 이후의 경험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낙인 경험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시간대에 밖에 나오면 옆 집 이모에서부터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왜 학교를 안 다니는지 물었고, 사람들의 감정이 시선과 표정, 말투에서 느껴지면서 ‘자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데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질책 같은 질문이 계속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색상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데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니 억울했고 그저 학교를 그만둔 문제아를 훈계하고 싫어한다고 느꼈다(이지연, 조아미, 2021).

이들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 했고 시간을 아껴가며 착실히 해온 결과 검정고시도 합격하였고,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도 생겼다. 계획한 것을 하나씩 실천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삶도 좋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관여하며 이들의 삶을 평가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부족한 존재로 취급하고, 주눅 드는 경험을 하였다.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이유 없이 안 좋게 보았고 사람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저평가하였다(명소연, 조진옥, 2019).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기본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것은 기본도 안된 것으로 여기며 생활 곳곳에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소외를 당하는 것은 곧 차별을 받는 것으로 연결되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학생증을 요구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학생도, 성인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이지연, 조아미, 2021).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를 떠나기 이전인 학교에서의 생활경험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학교에서의 공부 압박과 같은 시스템의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 부모님과의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중단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는 주변의 인식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를 관두기로 한 결정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러한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받은 경우에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를 떠난 이후에는 세상으로부터 배제되어있다는 소외감, 차별, 사회적 낙인, 제도와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에 학교를 떠난 후에 시간적인 자유로움을 제대로 활용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즐겁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김현주, 박재연, 2019).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걸 의미하고 ‘학교가 좋은 곳’이라는 가정 자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싶을 만큼 좋은 추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의 상처가 학교를 떠나는 결정을 만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이주연, 정제영, 2015).

즉, 학교를 떠나기 위한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주변인들의 지지, 믿음,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적응한 아이라는 낙인과 편견을 개선하고 오롯이 그들이 느끼는 경험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었던 생활경험들과 이로 인해 느낀 삶의 만족도를 선행 연구를 통해 정립하였고,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느꼈을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현상학적 연구로 심층 면접을 통해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삶을 바라보고 정리를 하여 각각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어떻게 이들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모집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아 연구참여자를 점점 늘려가는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경험한 9-24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24세 사이 장기결석, 취학의무 유예, 제적, 퇴학, 자퇴 등의 이유로 초, 중, 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연구참여자 모집 방법으로는 본 연구가 심층적이고 질적인 자료의 수집을 하고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는 눈덩이 표집으로 진행하였으며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모집하여 연구참여자를 점점 늘려가며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 맞게 소수의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연구참여자는 11명으로 정하였다.

피험자의 범위 설정 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이전, 중단과정, 이후의 경험을 비교하여 좀 더 생생하게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오랜 기간이 지난 성인이 아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정해 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고 현상학적 연구인 만큼 다양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하여 미성년자나 성인이 된 이후와 상관없이 각자의 삶에 따라 느끼는 경험 역시 다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심층적이면서 다양한 각도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 기준을 학교 밖 청소년을 경험한 9-24세 사이 청소년으로 정하였다. 또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전체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연구참여자 모집 방법은 처음에는 연구책임자인 본인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를 가르치며 교육 봉사를 진행하였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같은 경험을 한 학교 밖 청소년을 소개받거나 과거에 학교 교사, 청년,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였던 마을 공동체 모임에서 알게 된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여 연구를 소개하고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만큼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 연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기록됨을 알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및 설명서를 이용하여 직접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고 서명을 받았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추가로 얻었고 눈덩이 표집을 통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진행하는 만큼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소 인터뷰를 진행하기 7일 전에 동의서를 설명하였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다.

본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2022년 6월에 연구자의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심층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은 연구승인일로부터 진행하였다. 면담은 1회에 평균 60~90분이 소요되었으며, 3회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피험자에게는 본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 없음을 알리고 이 연구에 참여시 직접적인 이득은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다.

2. 연구방법론

현상학적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며 Giorgi(1985)는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이 일상적인 세계에서 경험하는 어렴풋한 체험을 분명한 체험의 구조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로 구성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인간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할 수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의미 있게 다루는데 적절하다고 본다(박병금, 노필순, 2016).

특히 현상학적 방법은 주어진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기보다 사물이나 현상의 경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현상을 경험한 개인의 인생이 아닌 여러 명을 면접하고, 철학적 논의와 함께 그 경험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기술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05).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결심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살아가는 현상에 대한 경험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공통된 경험 내용을 함께 진술하고 통합해 낼 수 있다는 Giorgi의 현상학적 접근이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생활경험 및 삶의 만족도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상학적 방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학교를 떠나기 전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학교를 떠나는 과정과 학교 밖 생활의 경험 및 삶의 만족도를 순서대로 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더욱 쉽게 그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실시하였고 심층 면접을 사용하였으며 면접 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참여자 반응을 기술하고 녹취내용을 확인하여 의

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 범주화하였고 진술들의 공통적인 현상을 찾고 경험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면접 질문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크게 학교를 떠나기 전, 학교를 떠나는 과정, 학교를 떠난 이후로 나누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는 전반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겪은 경험과 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 삶의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질문하였고 학교를 떠나는 과정에서는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계기와 이유,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하였으며 학교중단 이후에는 이전과 생활경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삶의 만족도 역시 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심층 면접에 대한 전략으로는 우선 1회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생활경험에 대해서 탐색하고 라포형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2회기에는 생활경험을 학교에 다닐 때와 중단과정, 중단 이후로 구분하여 면접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생활경험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회기에서는 이들이 겪었던 생활경험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나 필요했던 부분, 혹은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 이러한 생활경험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질문을 하였고 이를 통해 의미를 도출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에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폐쇄형 질문이나 유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고 질문에 대한 예시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학교를 그만둔 후 삶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학교를 떠난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고).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녹음을 진행하였고 녹음한 파일을 텍스트화시켜 논문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있는 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였으며 텍스트화한 문서를 토대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 순서에 맞추어 구분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 내용 읽기로 면접 내용을 전체 인식을 통해 전반적인 문맥을 염두에 두면서 기술 내용을 읽는 단계로 자료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인터뷰 참여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수차례 읽고 전체 의미를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미 단위로 나누기로 1단계에서 전체에 대한 인식이 생성되었다면 의미 단위 구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는 연구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기술 내용을 찬찬히 읽으며 처리 가능한 단위로 쪼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 단위로 나눌지 생각하는 연구자의 의식적인 노력이 일어나게 되고 기술 내용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특정 부분을 주제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학문적 표현으로 변형하기로 위 2단계에서 분류, 도출한 의미 단위를 적절한 학문적 표현으로 바꾸어 그 속에 포함된 학문적 통찰을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는 구조로 통합하기로 3단계에서 도출한 학문적 표현들을 구조 차원에서 통합하는 단계로 일관성을 갖춘 구조화된 진술로 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구조는 경험의 구조를 의미하며 참여자 행위의 이유가 아닌 행위의 경험 구조를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의 원칙과 틀을 적용하여 구조화하고 분석하고자 하였고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진술들의 공통적인 현상을 찾고 경험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을 기술하고 최종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성별, 연령, 학교 밖 청소년 기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경험 과정에 있어서 인터뷰 내용에서 같거나 비슷한 단어 위주로 묶어서 기술하고

이 외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있다면 기술하여 그러한 경험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 경험이 있으며 탈학교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인 배경과 특성은 표IV-1와 같다.

표IV-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나이	학교를 떠난 시기	현재 생활
연구참여자A	남	20	17(고1)	대입 준비
연구참여자B	여	19	18(고2)	대안학교 재학
연구참여자C	남	19	17(미진학)	대학 1학년
연구참여자D	여	23	17(고1)	명상치유센터 근무
연구참여자E	여	23	17(고1)	대학 3학년
연구참여자F	남	18	17(고1)	대입 준비
연구참여자G	여	16	14(중1)	대안학교 재학
연구참여자H	남	17	16(중3)	고교 재학
연구참여자I	남	18	17(미진학)	대안학교 재학
연구참여자J	여	18	17(고1)	이모티콘 작가 준비
연구참여자K	남	17	16(중3)	대안학교 재학

연구참여자의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A는 제주도로 이사 오면서 학교를 관두게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지에서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부모님께서 학교 끝나고 학원에 다니는 걸 좀 안 좋게 보셔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중학교까지는 공교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 대입 입시에 치중해야만 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에 말레이시아에 가족들과 3개월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억압 받는 것도 힘들고 경험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교를 관두고 제주도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사 온 이후에는 꿈드림 센터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였고 혼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점이 많이 외로웠다. 그리고 검정고시나 수능 관련 정보도 얻을 방법이 많이 없어서 혼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여행을 좋아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좋아하다 보니 현재 대학교에 관광경영학과로 가고자 준비 중이고 제주도로 이사한 후 코로나가 생기면서 혼자서 계속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다. 혼자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던 만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B는 고2 4월에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고1 때는 오디세이 학교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년제 대안학교에 재학하였고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거웠지만 2학년으로 복교하면서 대입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꼈고 딱히 목표가 없던 상황에서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면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교과서만 읽는 수업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학교를 관두었고 현재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3주 동안 하면서 스스로 시간표를 짜보고 생활을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결정하는 게 낯설고 불안했지만,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퇴를 결정하였다.

자퇴 이후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합격하였고 아직은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당분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C>

C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걸 좋아하였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가려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에 미진학하였고 자퇴 이후 여행을 다니고 영어도 배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하여 자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획이 다 무산되었고 집 밖을 아예 나갈 수 없게 되어 1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다. 학교를 관두고 나서는 친구들과 놀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데 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해외에 누나가 살고 있어서 해외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지만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스포츠레저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였고 현재 1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꿈드림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다.

<D>

D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학교를 관두었다. 학교 교육이 너무 획일적이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퇴를 결정하였다.

자퇴 이후에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여행이나 명상 관련해서 다양하게 배

울 수 있는 1년 과정 대안학교를 다녔고 끝난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였다.

꿈드림센터의 도움을 받아 검정고시를 보았고 자퇴를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현재는 명상치유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E>

E는 중학교를 필리핀에서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진학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 후 1학년 말에 관두게 되었다.

기숙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진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범죄심리나 경찰이 꿈이었지만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성적에 맞춰서 적성에 관계없이 취업이 잘 될 거 같은 학과에 진학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퇴를 결심하였다.

이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 이후 수능 공부를 하였고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 후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현재 프로파일러로 진로를 정하여 대학생으로 공부 중이다.

<F>

F는 초등학생 때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을 하였다. 부모님의 교육철학이 대안학교에 맞기도 했고 형도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학교 분위기는 소수정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가족 같아서 좋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이후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없었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자 입시 준비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나와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현재 대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두고 준비하고 있고 혼자서 학원에 다니며 준비하다 보니 답답하긴 하지만 스스로 자유롭게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G>

G는 초등학교까지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를 진학하였지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현재는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팀별로 하는 공익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여 프로젝트에 매진 중이다. 학교를 관둔 직후에는 여러 나라에 여행을 다니면서 큰 행복감을 느꼈고 공부보다 하고 싶은 걸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는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고민 중이고 대학 진학이나 창업에도 관심이 많아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여 청각장애인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회의하며 진행 중이다.

<H>

H는 중학교를 대안학교에도 다녀보고 국제학교에도 다니다가 학교를 관둔 후 홈스쿨링을 하며 검정고시 공부를 하였다. 대안학교를 타지에서 다니면서 가족들을 자주 못 봐서 힘들기도 했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자 제주도에 내려와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다.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고 기숙사 생활도 너무 답답하다 보니 학교생활에 회의감을 느껴 관두게 되었고 현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IB 학교로 선정되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역사에 관심이 많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공을 역사 쪽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I>

I는 중학교를 대안학교에 다녔고 고등학교를 미진학하였다. 대안학교는 부모님의 교육철학이어서 자연스럽게 진학하게 되었고 그즈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다 보니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 관계에 더 집중해서 학교생활을 하

게 되었다.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공부보다는 노는걸 좋아하다 보니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다녔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숙사에서 자습시간도 밤늦게까지 하고 공부량도 점점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시기에 좀 더 자유로운 대안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면접에서 떨어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미진학하게 되었다.

현재는 잘 맞는 대안학교에 진학하여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공부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지금 목표는 청소년 관련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다.

<J>

J는 고1 여름방학에 학교를 관두었다. 원래는 경기도 쪽에서 살다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진학을 갈까 했었는데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어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자퇴를 고민하였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여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좀 더 폭넓게 경험을 하고 싶어 관두고 나서 현재 이모티콘 작가를 준비하고 있다.

꿈드림을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편이고 시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원래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진학을 못 하게 되어 아쉬웠고 지금까지 꿈을 놓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여 준비중이다.

<K>

K는 중학교 3학년에 자퇴를 하였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는 외부 활동을 좋아했는데 못하게 되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퇴를 결정하였고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많이 컸다.

현재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고민 중이고 학교를 관둔 이후 친구 관계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나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학교를 나오면서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고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소속감이 채워지고 있다.

아직 진로에 관해 결정은 하지 않았고 좀 더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운 후에 대학이나 진로를 결정하려고 생각 중이다. 지금은 교육이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는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분석방법에 따라 연구자가 제공한 면접 내용을 통해 도출한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을 6개의 구성요소와 내용 면에서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반응들로 묶어 15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생활경험 내용을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대인관계, 진로와 직업, 학습과 학업, 정서와 심리, 복지와 사회적 지원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을 하위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표IV-2에 제시하였다.

표IV-2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 내용 하위요소

면접 내용 키워드	청소년들의 응답 내용 구성요소
1.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가. 여러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의 욕구가 강함을 깨달음 나. 시간 활용을 통한 자기계발 및 경험으로 행복을 느낌 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장하고 발전함 가.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짐
2. 대인관계	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더 편해짐 다.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위축됨 가. 원하는 진로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꿈을 이루어감
3. 진로과 직업	나.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낌 다. 여러 경험을 통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큰 꿈을 계획하게 됨 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4. 학습과 학업	나.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경험함 다. 검정고시생의 입시 준비로 한계를 느낌 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라는 외로움
5. 정서와 심리	나.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 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가. 꿈드림의 도움
6. 복지와 사회적 지원	나. 알아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정보 부족 다. 학생만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함

1.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자 여러 이유로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데 그 중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아 성찰 및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학교중단 이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여행이나 영화 제작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을 하였다.

가. 여러 경험을 통해 변화와 성장의 욕구가 강함을 느낌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시기인데 이러한 자기계발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욕구로 인해 학교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참여자 A>

“고등학교 1학년 8월 그때쯤에 말레이시아에 가족들과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무작정 그 나라에 가서 완전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원래는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없었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약간 성장하게 되는 걸 보면서 혼자 공부 계획을 제가 짜고 그다음에 인강 같은 거를 어머니가 구매해 주셔가지고 EBS도 듣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이제 또 3개월이 끝나고 나서 학교로 돌아와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고 이제 우리 판 데로 가서 학교를 그만두고 네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고 이런 계획들도 잘 세우니까 내려가 보는 건 어떡냐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학교를 관두고 제주도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참여자 B>

“사실 그냥 2학년으로 복귀하고 공부해서 적당히 대학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이제 같이 오디세이에 다녔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공간 민들레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 친구는 다른 대안학교에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하는 거를 듣고 선택지가 복교만 있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그때부터 조금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 학교 가면은 아무튼 대학이 목표니까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과를 골지 뭘 배우고 싶은지 약간 그런 목표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그냥 학교를 가게 되면 성적 맞춰서 대학 가서 이렇게 4년 어찌저찌 공부하다가 이렇게 될 것 같더라는 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공간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 학교를 가보기는 했는데 수업도 그냥 선생님들이 교과서만 그대로 줄줄 읽는 수업들이 너무 많고 그 시간이 저한테 의미가 있게 느껴지지 않고 좀 아깝다고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스스로 변화와 성장의 욕구가 크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욕구가 틀에 얽매인 학교를 벗어나 자유롭게 경험하기 위하여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남들이 다 하듯이 습관적으로 학교를 가고,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학교를 관두는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학교를 관둔 이후 여러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순히 충동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학교를 관두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와 성장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시간 활용을 통한 자기계발 및 경험으로 행복을 느낌

학교중단 이후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여행을 다니거나 영화 제작, 악기 배우기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D>

“제가 약간 여행이나 명상 이런 걸 하는 대안학교 1년 과정으로 가고 싶어 해서 거기를 이제 자퇴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이게 막 시험을 보는 학교가 아니라 여행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일바를 시작해보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그런 걸 중심으로 한 학교를 갔었고 다니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하고 일하고 계속 여행을 다녔던 거 같아요.”

<참여자 G>

“해외여행을 다니려고 이제 해외여행 가는 곳에 기숙학원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 같은 걸 이제 매주 주말마다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좀 더 오래 다니고 싶다고 말을 하니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해서 중1 때 해외여행 다니고 책 읽고 그냥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들하고 좀 지냈어요. 중학교 자퇴가 안 된다고 해서 진학하고 6개월 동안 결석처리가 되고 자퇴처리가 되었고 그때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오고 길게 중국 여행을 다녀왔었어요. 여행을 다녀오면서 공부보다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됐었고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를 관두고 지속적으로 여행을 다니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관둔 이후 자신이 하고 싶은 경험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고 특히 친구들이 학교 다닐 시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를 활용하여 여행을 하고 책을 읽는 등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즐거움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학교를 다닐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장하고 발전함

학교중단 이후 혼자 스스로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로 인해서 이전보다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참여자 A>

“저는 오히려 학교를 일찍 관두고 더 빨리 내려올 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려오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친구들과의 관계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빨리 내려와서 프로그램하고 좀 더 경험을 쌓았으면, 되게 부끄럽지만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체험하고 하면서 좀 더 빨리 진로를 찾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생각하는 거랑 나이랑 전체적으로 생각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주도 오면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혼자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혼자 공부해야 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생각의 깊이가 되게 짧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생각을 깊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지금 되게 만족스럽고 가끔씩 이제 다른 친구들은 지금 시점에 수능 준비를 하고 자소서를 쓰고 이런 시기라서 작년에 막 자퇴하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불안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제 생활 일생이 되게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저도 계획한 거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불안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하루하루 좀 알차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관둔 이후 무료하게 지내거나 놀기만 할거라는 선입

견과는 달리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성장하고 발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학교를 늦게 관둔 게 아쉬울 정도라고 답한 인터뷰도 있을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터닝포인트라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학교중단 선택이 각자의 삶에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학교를 관두게 된 점이 좀 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고 좀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2. 대인관계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여러 생활경험이 있었는데 가족들과의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경우도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더 편해졌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짐

학교중단 이후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다니며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참여자가 있었고 이전보다 더 친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A>

“여름에 말레이시아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가족들과 자주 여행을 갔었어요. 자주 외국에 다니면서 점점 가족이 편해지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있었던 그런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그런 세월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게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어렸을 때 제주도를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다보니 부모님께서 우리 제주도로 가볼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F>

“저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가족 같은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하셔서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분위기 만큼은 엄청 따뜻하고 소속감이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도 같이 여행도 가고 했었어서 좀 더 가족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I>

“저는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거 같아요. 제가 가족들도 가장 많이 변했다고 느꼈던 게 제가 중학교 때는 엄청 의지가 없었거든요. 뭐든지 친구들과 노는 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의지가 없는 의견도 안 내고 맨날 수없이 많이 자는 친구였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사진 같은 걸 보면 구석에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에서 부모님이 엄청 마음을 많이 쓰셨는데 3월에 대안학교에서 제주도여행을 다 같이 가요. 그때 보여주는 자리가 있는데 부모님들도 다 같이 보시거든요 제가 발표를 대표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보시고 부모님

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있어서 엄청 터닝포인트였던 거 같아요.”

학교중단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을 거라는 편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참여자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서 현재 삶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관둔 이후의 삶을 지지해주었고 오히려 학교를 다닐때보다 함께 지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 학교를 관두는 선택이 가족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더 편해짐

친구 관계에서는 학교 다닐 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낸 청소년도 있었던 반면 힘든 경험을 한 청소년도 있었고 학교중단 이후 친구 관계에서 더 편해졌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A>

“어렸을 때는 제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말하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맞춰나가야 하는 팀을 이뤄서 다가가야 돼서 힘들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바뀌고 상황이 나아져 있고 점점 변화하면서 두루두루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학교에 그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교생이 조를 짜는 거예요. 12개의 조로 나눠서 그냥 한 조에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조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애는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냥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인사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두루두루 친해지는 그런 게 많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저는 학교를 관두고 나서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나 할 수 있는 경험의 폭이나 그런 게 엄청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대학 입시나 그런 걸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생기고 그만큼의 또 다른데 쓸 에너지가 있는데 하고 싶었던 것들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조금 해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보고 새로 좀 경험해보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나를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확실히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조금 행동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가장 행복하면서 힘들었던 때인데 기숙사에 살면서 제가 다리를 다쳐서 두 달 동안 깁스를 했었어요 근데 매일 업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진짜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놀 수 있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힘들었던 거는 제가 뭔가 가면을 몇 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되게 혼자서 많이 힘들어했고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할 생각조차 못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I>

“제가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을 하시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더 심적으로 힘들었겠다는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내가 또 말썽 피우면 안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리가 멀고 아예 대면을 안 하다 보니까 별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별일 아니구나라는 저 스스로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구들이랑 관계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4시간 같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일반적인 중학교에서의 유대관계보다는 훨씬 깊다고 느껴졌습니다.”

<참여자 K>

“저는 학교를 관두고 대인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게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도 편하게 만나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어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이 있어서 관두게 되었을 거라는 기존의 생각들과는 달리 학교에 다니면서 원만하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중단 이후에는 기존의 친구들과 멀어져 힘들었지만, 사회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더 편하고 자유로워졌다고 답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학교중단 선택이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은 또래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위축됨

주변의 인식이나 반응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기해하고 놀라는 경우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로 인해 상처를 받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C>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제가 운동을 다니고 있어서 체육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학교를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거든요. 19살이라 그러면 고3이구나 힘들겠다. 학교 어디 다니지 항상 물어 보는데 그때마다 학교는 안 다니고 이제 뭐 다른 활동 하고 있다 하면은 대놓고 그래도 되는 거나 이런 사람은 없긴 한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다들 좀 놀라는 그런 눈치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E>

“사실 센터를 다니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대학을 간 사람은 저 포함 두 명밖에 없었어요.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약간 지금 저랑 같은 나이인데도 중졸에 멈춰있는 애도 있고, 물론 개네들은 이제 성공이나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성적이 아니고 취업이 아니고 돈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그냥 일 안 하고 집에서만 놀고먹으면 백수잖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깝게 보는 시선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자퇴한 거에 대해서 쉽게 나 감정고시 봤어, 자퇴했어. 이렇게 말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위치를 잡았을 때 나 자퇴했어, 그냥 그때 감정고시 봤어. 이러면은 그때 뭐 사정이 있었나 보더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은 잘 못 하겠어요.”

<참여자 I>

“제가 원래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미진학하려고 했었는데 심지어 저희 담임선생님은 고등학교 진학을 같이 준비해주시다가 심지어 후기인데 떨어진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갈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나 그리고 나중에 뭐 하고 실례 그런 저한테는 필요 없는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너의 인생은 실패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그래서 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학교중단 이후 주변의 인식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스스로도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위축되어 솔직하게 학교를 관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의아해하는 시선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편적인 또래 친구들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스스로도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3.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교중단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앞으로의 확고한 미래계획을 실천해 나가거나 여러 경험을 통해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청소년도 있었다.

가. 원하는 진로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꿈을 이루어감

확고한 진로를 설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아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이 있었고 이러한 선택을 통한 다양한 생활경험이 나타났다.

<참여자 E>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범직심리나 경찰 쪽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학교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대화를 하면 성적에 맞춰서 그냥 적성이란 그런 거 관계없이 가장 취업이 잘 되는 곳으로 갈 걸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찰을 희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계단식 고등학교 학습제도를 벗어나도 경찰의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궁금증에 관 두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그냥 적성을 찾지 못하고 대학에 와서도 솔직히 전공이 나랑 맞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충분한 고민을 학생 때 해보고 싶고 제가 과연 그 제도를 벗어나도 꿈을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해서 밖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참여자 J>

“저는 학교 공부량은 약간 거리가 있었고 제주도 내려오는 타이밍이랑 맞아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현재 이모티콘 작가 준비를 하고 있고 겸정고시 본 후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는 진로 부분에서도 안 맞는 부분도 많아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고 예전에 중학교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나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가족들 이랑 보내거나 아니면 이모티콘 그림을 그리는 게 대부분이고 원래는 인문계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생각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인문계를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 고등학교를 갔었으면 계속 학교에 다녔을 것 같기도 해요.”

학교를 중단하는 주된 이유가 자신의 진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교중단 이후 원하는 공부를 하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꿈을 이루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학교 내에서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학교의 커리큘럼이 좀 더 다양해져서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낌

다양한 미래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실천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현재 관련된 경험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D>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저는 조금 긴 여행을 떠나고 싶고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고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책방을 하고 싶고 그냥 일로서 생각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 공간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E>

“학교를 관두고 나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고졸 출신의 경찰은 그렇게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경찰도 그렇고 그쪽은 인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범직심리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 쪽으로 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참여자 F>

“지금은 실용음악 전공으로 진로를 정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입시학원에 다니면서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지금 대학 가려고 써 빠지게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나는 어떡하지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고 예전부터 관심 있던 음악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참여자 G>

“대안학교에 다닐 때 이제 인턴십을 일주일 동안 갔었는데 독일식 대안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 같이 생활해보는 과정에서 대안학교를 여러 개 경험해보면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안 교육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부분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여러 동아리 같은 걸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면서 대학을 가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창업 쪽으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I>

“저는 요즘 청소년 관련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마음의 병이 있는 학생들 그런 청소년들의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고 싶거든요. 다들 마음속에는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있고 그런 아픔과 힘든 것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저는 몇천 배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청소년 영화로 담고 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고 많은 청소년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해주고 조금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참여자 J>

“저는 이모티콘 작가를 꿈꾸고 있는데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모티콘을 그려서 거기에 제안을 하면 거기서 승낙하면 그게 이모티콘으로 가는 거고 승낙을 안 해주면 다시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모티콘 말고도 나중에 문구 브랜드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제 캐릭터가 들어간 그런 거를 판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낼 거라는 기존의 선입견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해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다수로 나타났고 오히려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자세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중하게 선택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를 관두고 나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 여러 경험을 통해 도전 의식을 가지고 큰 꿈을 계획하게 됨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추후 미래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 큰 꿈을 꾸고 경험을 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참여자 G>

“저는 캐나다 여행이나 미국 갔을 때 제일 좋았어요. 그때 둘러보고 다시 숙소 들어와서 같이 책 읽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약간 토론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때가 뭔가 이게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던 순간이어서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요즘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창업에도 관심이 많지만, 대학을 가고 싶어서 지금처럼 하면 혼자 계속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 쪽에도 관심이 많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길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청각장애인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공유회가 계속 있어서 준비중이에요.”

<참여자 I>

“제가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 그 시기에 자유학기제라서 국어 시간에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학생들끼리 그래서 그 시기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퀄리티가 높은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은 영화를 그냥 만들어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애들이랑 카메라를 다뤄보고 편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경험이었었는데 그때의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영화에 아직도 관심이 많고 그런 촬영 쪽으로 앞으로도 일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라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행복했던 경험인 거 같아요.”

<참여자 K>

“저는 현재 대학은 좀 고민을 해보고 필요할 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세상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사람이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세상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고 사회복지 쪽으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도 빨리 갈 것 같고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일도 해보면서 많이 배워볼 거 같아요.”

학교를 다닐 때와 관둔 이후 즐거운 경험을 하였고 이후 여러 경험을 통해 도전 의식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계획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당장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습득력이 빠른 청소년들에게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어온 경험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학습과 학업

학교중단 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중단 이후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

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나 교육과정에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서 학교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힘들음 호소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B>

“너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매번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업 일방적으로 듣고 그래도 조금 주도성이 필요한 그런 팀 조별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 그냥 점수 잘 받으려고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주도성이 있는 활동이 필요할 거 같고 너무 학교 안에만 있으면 경험들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저는 공부에 대한 압박이 진짜 심했어요. 그냥 공부 조금 못하면 제가 진짜 엄청 못난 사람이 되고 공부로만 인정받고 공부를 못하면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 하고 이런 느낌도 있었고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업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E>

“선생님이랑 진로상담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성적과의 괴리감,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그 성적이 안 나왔어요. 사실 학교 수업시간에 잘 듣고 끝났으면 몰라도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6시 50분에 기상하고 거의 3, 4시간만 자고 학교를 가는 생활을 1년 반복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고 성적은 인생 최저점을 받고서 많이 우울했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하시면서 여기는 좀 힘들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괴리감이 많이 들었고 경찰 쪽을 희망하다 보니까 입결이 세서 등급이 잘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어중간하게 될까 봐 더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H>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원래 중학교 때는 완전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는 살짝 선후배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거고 좀 안 맞았고요. 또 갑자기 확 공부를 엄청 많이 하니 제가 영어를 엄청 싫어했는데 그때 거긴 영어로만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워낙 좀 힘들기도 했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라서 부모님께 관둬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참여자 K>

“저는 코로나 이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좀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 힘들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는 뭘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학교에서만 활동을 하니깐 어쨌든 성적으로 내가 뭘 보여주고 증명해서 지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거는 아예 하지를 않아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계속 실망만 안겨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성적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학교를 관두는 경우도 있었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특히 학교의 분위기와 선생님에 의해서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이들은 그러한 교육제도에서 상처를 받게 되었다. 결국 공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생겼고 이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이들을 돕기 위한 교육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경험함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후 혼자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청소년이 있었다.

<참여자 A>

“그냥 검정고시 봐서 합격하자 했는데 어찌 보면 그냥 고등학교 과정 1학년 2학년까지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부담됐어요. 뭐가 뭔소리인지 알기 어려웠는데 그냥 수능도 혼자 공부해서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선생님 같은 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없다는 게 어려웠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도움이 됐던 거는 혼자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더하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G>

“홈스쿨링 할 때는 조금 사실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도 많이 없고 혼자서 그걸 다 찾아서 시스템을 혼자 만들고 스케줄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서 그때는 이제 학교를 나온 선택을 처음으로 후회했던 때인 것 같아요.”

학교중단 이후 혼자서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서 당황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교중단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고 학교중단 이후에도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관둔 이후 사회에 내던져진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학교를 관둘 때부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검정고시생의 입시 준비로 한계를 느낌

학교중단 이후 검정고시를 보고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데 수시 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적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수능에만 몰두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참여자 A>

“제주도가 마음에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학교로 가지 해서 작년에 수능 보고 제주대학교에 지원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성적을 더 올리려고 며칠 전에 검정고시를 한 번 더 쳤는데 다행히도 저번에 봤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과목이 이제 점수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저번에 봤던 것보다 다른 과목들이 더 점수가 높는데 평균 점수는 12점 정도가 더 낮아진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평균 점수가 높으려면은 저번 거를 내면 되는데 이거는 또 너무 아깝고 관광 경영, 여행 마케팅 쪽으로 해가지고 상품 같은 거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검정고시 출신자를 딱 한 명 뽑더라고요. 검정고시로 대학교를 가는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G>

“뭔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게 되면 학교를 나온 친구들과의 교류만 가능하지 그 이외에 친구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실 대학 진학이나 진로 같은 부분에서 혼자 고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수시 원서를 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없는 친구들 특히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양식이랑 형식 그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혼자 검색해서 봐야 되다 보니까 조금 범위가 좁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참여자 I>

“제가 최근에 대학을 지원하려고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겨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퇴를 하면 내신이 없잖아요. 검정고시를 보고 오로지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아예 검정고시생은 지원 자체가 안되는 학과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영화 학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과나 연출과는 검정고시생을 지원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고 이제 와서 대학 가서 공부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왜 대학을 못 가게 하 나라는 불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학교중단 이후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을 때 일반 학생들과 달리 수시 제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학교가 많다고 얘기하는 청소년이 많았고 도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좁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검정고시생들에게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성과 평등성을 위한 입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검정고시 점수로 인해

서 학교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내신과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결국 이러한 점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힘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평등한 입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 정서와 심리

학교중단 이후 초반에는 친구들이 없어서 외로움과 다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청소년도 있었다.

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라는 외로움

학교를 그만두면서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 연락이 끊기고 대화할 친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겪는 외로움이 있었다.

<참여자 A>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이면 약간 친구들이 이제 많아야 되는데 여기로 오게 되면서 거기 남아 있는 친구들 몇몇 친했던 애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애들이 없더라고요.”

<참여자 C>

“학교를 관두고 나서 어쨌든 저는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은 학교 가고 학교 다닐 때 저는 계속 거의 몇 년 동안 방학이었던 느낌이라 친구들은 거의 연락이 끊기죠. 솔직히 개네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친구랑 통화를 하지 저랑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남고 솔직히 좀 우울하고 외로웠던 거 같아요. 초반에 집에만 있을 때는 약간 자괴감도 오고 내가 이려려고 안 갔나 그냥 이려려고 집에만 있나 왜 난 이려고 있지 이런 약간 괴리감이 좀 많이 왔죠.”

<참여자 F>

“사실 최근에 이제 밖에 학교를 안 다니니까 꾸준히 레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나가봤자 연습실 왔다 갔다 하고 레슨 실 왔다 갔다 하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람 만날 일도 선생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친구들을 빨리 사귀어야겠다. 그래서 대학을 20살에는 무조건 어디에 가더라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교중단 이후 혼자라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점점 친구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우울감을 겪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를 중단하려는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심리상담이나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 고립되지 않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과 지원센터의 도움이 중요하다.

나.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

학교중단을 선택한 직후 그 결정이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결국에는 다 다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는 점을 느낀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B>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조금 낯설고 약간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자퇴하고 나서 직후에는 그런 약간의 막연함 그리고 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저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함,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작년에 민들레에 다니면서 다 학교를 자퇴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고 소속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참여자 F>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하게 되게 결국에는 일반 학교랑 대안학교랑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어쨌든 같은 그러니까 뭔가 고립된 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되게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엔 거기서 끝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예외케이스가 있지만, 학교의 사상에 따라서 뭐 일반 학교는 결국에는 목적이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대학은 직장을 보내는 거고 높은 커리어를 쌓고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길밖에 없어서 다른 길들은 다 놓쳐버리는, 그래서 사실 그 차이는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이지 결국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어디를 다니든 학교마다 또 다르잖아요 겪은 경험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뭐가 다르다고 감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겪는 청소년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변의 지지, 특히 어른들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심 어린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같은 선택을 한 또래들과 함께하는 집단상담이나 여러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온 만큼 앞으로도 다른 청소년들의 경험에 비해 더 잘 살 거라는 자신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었고 각자 다 장단점이 있지만 문제해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A>

“저는 뭐해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뭘 해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자신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들이 이거는 되게 확고하게 생각하는 건데 공부만 한 애들보다 미래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전교 1등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일이 틀어지거나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걸 확정 짓고 이런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틀어졌을 때 서포트해주거나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끌어 가는 일 그런 건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냥 혼자 공부하고 혼자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타인을 생각하고 옆을 볼 틈이 없는데 저는 옆에 두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팀원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걸 잘할 자신이 있어요.”

<참여자 E>

“저는 잘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안 다니고 있냐는 그 질문 하나에 되게 마치 학교 다니는 것 자체를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질문을 하니깐 사람들이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관둔다는 선택을 한게 솔직히 저한테 자신감을 준 것 같고 내가 해낼 수 있었다는 자신감, 대학 입시라든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 일단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거 같아요. 내 삶은 내거다 라는 주인 의식이 확실히 있

어요.”

<참여자 H>

“확실히 여러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라든가 어떤 점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 경험이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거 같고요.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을 일단 체험해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거 같고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당연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렇게 하는게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 다른 경험인 거 같아요.”

<참여자 K>

“일단 일반 학교를 나왔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가 더 잘났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원래 가던 길도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 그게 나중에 됐을 때 조금 더 버티는 거에 있어서라든가 그런 것들도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학력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안학교를 나온다면 그래도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 삶에 대해서 고찰을 하거나 아니면 좀 깊게 생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의 태도 등을 좀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학교중단 이후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고 실천하고 꿈을 실현해나가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를 중단하는 선택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학교를 중단하는 선택이 충동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학교를 관두기 위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6. 복지와 사회적 지원

학교중단 이후 학교 밖 지원센터의 꿈드림과 같이 사회적 지원의 혜택을 받은 청소년도 있었지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가. 꿈드림의 도움

꿈드림 센터에서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A>

“센터 내에서 무슨 동화책 만들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영화 촬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이제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의인화해서 영화로 만든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체험도 해봤고 또 점점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강의 같은 것도 들을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경찰관 수업, 마카롱 만들기, 쿠킹 클래스, 알바에 관련된 근로계약 이런 거에 대한 강의 같은 것도 듣고 선생님이 있으면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자격증 같은 거 바리스타 자격증은 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땀거든요. 점점 그렇게 되면서 많이 나아졌던 거 같아요.”

<참여자 B>

“작년에 이제 검정고시 교재 지원을 받으려고 꿈드림 센터에 연락했었는데 저의 꿈드림 센터의 쌤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교재 받으러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자주 센터 놀러 오라고 하고 밥 사준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주 가다가 이제 올해부터 꿈드림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같이하고 있고 그래서 꿈드림 패 자주 이용하는 편인 거 같아요.”

<참여자 C>

“센터에 다닌 거에 대해서 만족은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좋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저는 약간 운동 쪽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활동적인 걸 안 하니깐 거기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드게임이나 서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뭔가 야외 활동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은 좀 계획을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참여자 H>

“꿈드림에 다니면서 되게 좋았어요. 국제학교에서는 조금 더 일반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만들어졌다면 꿈드림에서는 살짝 좀 치유받는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거기서 형 누나들이랑 다시 가족 좀 되게 친한 그런 분위기였던 거 같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면서 이에 대한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청소년이 많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면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꿈드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 알아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정보 부족

주변에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없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E>

“검정고시를 보고 검정고시 성적으로는 아예 원서를 낼 수가 없어서 수시에서 낼 수 있는 건 눈살이었어요. 근데 눈살도 최저를 봐야 되고 무조건 수능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검정고시나 수능도 제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고 원서접수도 제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깐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또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 더덕욱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G>

“제일 어려웠던 건 뭔가 사실 뭘 하고 싶어도 어디서 뭘 어떻게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조차 알 곳이 없었고 사실 학교는 커뮤니티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한테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서 그냥 아예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에서 혼자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사실 그때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컸었고 그런 정보나 만남의 기회 같은 거라도 줬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학교중단 이후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하고 복지 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아무래도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관두는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해주거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학생만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함

청소년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을 많이 받은 청소년도 있었지만, 한계점 역시 많이 느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다른 기관과 연계가 되는 경우를 아예 몰라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D>

“생각보다 청소년 지원이 한계점도 많은데 지원되는 것도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행 하고 돈 벌고 이런저런 활동하고, 근데 지금 교육과정도 다들 방과 후 활동 같은 것도 엄청 많이 하고 아이들을 더 많은 꿈을 꾸게 하자 해놓고 그것도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학교라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I>

“저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나 꿈드림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 개념 자체도 최근에 알

게 된 개념이라 학교 밖 청소년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가지고 그걸 더 찾아보고 이미 저한테는 그게 안 좋다는 거로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었다 보니까 뭘 찾아볼 그것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그걸 찾아보라는 권유도 없었어요. 저로서는 그때 좀 찾아봤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안학교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찾아보고 오게 되었어요. 그런 정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한계를 경험한 청소년도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도 얻지 못하고 학교를 관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각자의 경우에 맞는 사회적 지원을 해주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청소년이 없게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를 관두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들을 돕고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7. 학교를 관두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학교를 중단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로는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본인의 확고한 목표와 기준이 있다면 자퇴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참여자 A>

“저는 자신 없으면 학교 관두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건 맞거든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나갈 자신 없으면 관두지 말고 그냥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다니는게, 근데 만약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고 그걸 지켜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도전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더 어린 나이라면 솔직히 권해주고 싶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교 밖 생활하다가 나한테 맞네 하면 쪽 가는 거고 안 맞으면 고등학교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참여자 C>

“그냥 센터에 가다 보면은 중학생들이 물어봐요 나 사실 고민 중인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 나는 굳이 경험해봤을 때 나랑 안 맞아서 대안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목표가 확실하다면 자퇴를 하는게 맞겠죠. 자퇴를 하고 꿈을 실현시키는게 맞는데 확실한 비전 없이 뭔가가 싫어서, 불편해서 자퇴를 한다 그러면 굳이 그럴 바에는 한 번 경험을 해본 뒤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퇴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참여자 G>

“그 불안함과 뭔가 불확실한 미래와 현재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학교를 나와서 다른 경험하는 걸 추천을 하고 만약에 단지 학교가 싫어서라는 이유로만 학교를 나오게 되면 어디를 다니든 불만이 생기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학교가 싫어서라기보다는 학교가 싫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나오면 좀 더 잘 시스템에 어우러져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자 I>

“저는 무작정 자퇴하라고는 못할 거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퇴를 할 때 내 의지가 얼마나에 따라서 0을 가져갈 수도 있고 100, 1000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나는 그냥 공부가 싫은 친구들이면 자퇴를 권유하지 않을 거 같고 만약 자퇴를 한다고 해도 의지를 찾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만약 나는 의지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찾고 싶은데 이런 학업적인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걸 더 찾고 싶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제가 도와줄 거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자퇴에 대해서는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학교를 관둔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편적인 삶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만큼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크게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대인관계, 진로와 직업, 학습과 학업, 정서와 심리, 복지와 사회적 지원 측면으로 나누어 의미를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분류 기준으로는 이들의 생활경험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이러한 욕구와 의지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개선하고 현재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예전과는 달라진 현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진로와 직업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실현시키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는 학교에서의 도움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하며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습과 학업 측면 역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를 관두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상위권의 학생들 즉, 공부를 잘하는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학

교가 아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와 심리 측면에서는 학교중단 이후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지지나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이겨 낸 후 자신감을 얻는 경우 역시 많아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과 사회적 측면에서는 입시제도에 대한 부족한 정보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과의 연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복지 혜택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성하고 범주화하여 각각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었던 생활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이들이 겪어온 자세한 삶의 과정을 파악하고 탐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삶의 만족도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경험에 대해 심층 면접 질문지를 통해 청소년들의 반응을 15개로 분류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8월부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이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개요와 절차,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고 연구에 인용될 거라는 사실 등을 알렸고 참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분석 절차에 따라 4단계의 순서에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을 읽고 전체 내용을 인식함으로써 자료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는 1단계,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는 2단계, 도출한 의미 단위를 적절한 학문적 표현으로 바꾸는 3단계, 이를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일관성을 갖춘 구조화된 진술로 확립하는 과정인 4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Giorgi, A. 2004).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생활경험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었다. 학교에 있으면서 입시 위주 교육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박병금, 노필순, 2016). 그리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김현주, 박재연, 2019).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친구 관계에서 폭력과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 학교를 관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결과에서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친구관계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결과도 나타났다(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학교 중단 이후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일치하였다(이

지연, 조아미, 2021). 또한 복지 차원에서도 혼자 학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었고 소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김현주, 박재연, 2019).

이에 따른 결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아 성찰과 자기계발을 위한 욕구가 강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교중단 이후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학교중단 이전보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학교중단 과정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친구 관계에서는 원만한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중단 이후 더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편해지는 경우도 많았다.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역시 있었지만 이로 인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를 중단하는 이유로 자신의 확고한 진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미래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로와 적성을 탐색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심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교중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학교중단 이후에는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든 점이 많았으며 검정고시생의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한계를 느끼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학교중단 이후 혼자 지내야 하는 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주체가 되어서 혼자 해결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꿈드림의 도움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지원받아 합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청소년도 있었다. 반면에 알아서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점에서 고충을 토로하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청소년도 있었고 꿈드림의 정보를 아예 몰랐다가거나 혜택을 많이 보긴 했지만, 한계점 역시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관두고 싶어 하

는 청소년들에게는 대체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많았고 확고한 목표가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처럼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후 여러 고충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고 후회한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생활경험을 토대로 학교중단 이전, 중단과정, 중단 이후로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중단 이전에 겪었던 생활경험으로는 자아 성찰과 자기개발의 욕구, 틀에 박힌 교육, 학업 스트레스, 진로 설정을 위한 다양한 경험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탐색할 수 있다. 우선 학교 커리큘럼에 있어서 자아 성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하고 학업 스트레스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중단 과정에서는 선생님의 반대도 있었고 꿈드림 센터와 같은 제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가 있지만, 숙려제의 경험이 학교중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중단 이후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가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학교중단 이후의 과정이나 겪을 수 있는 외로움,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상황 등을 알려주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스스로 계획해보고 학습하거나 여러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교중단 이후에는 스스로 학습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정서적 측면에서 겪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있었으며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 정보 부족으로 인한 힘든 점도 있었고 꿈드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즉 꿈드림과 학교 측의 연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이 생기지 않게끔 심리상담 지원

이라거나 정보제공, 학습 및 입시 지원을 통해 일반적인 학교에 뒤처지지 않게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이고 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주변의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검정고시생으로서의 입시 제한 역시 대입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살펴보고 본 연구가 도출한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를 탐색하며 이들의 경험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제시하였지만, 질적 연구의 한계상 연구자가 소수의 면담자를 통해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러 구조 이외에도 다른 경험의 본질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한정된 면담시간에 광범위한 연구주제에 관해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험 구조에 대해서 파악했는지 몰라도 각각의 구조에 해당하는 더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표집을 이루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폭넓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요소별로 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이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탐색하고자 하였지만,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주관성이 개입되거나 이들의 경험이 선행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부분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경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보완하고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한 채로 질문지를 작성하고 면접을 진행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눈덩이 표집으로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학교중단 이후에도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복교의 경험, 꿈드림 센터의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모든 지역, 다양한 나이, 그 외에 센터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생활경험을 겪어왔는지,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나 도움, 원하는 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하여 이들의 생활경험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이들이 겪어왔던 생활경험을 흐름에 따라 연구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있어서 생활경험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틀린 선택이 아닌 그저 다른 선택을 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유도하며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그들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들이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제도적 여건 마련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청소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온 과정, 생활경험을 인터뷰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상처나 힘들었던 점, 학교중단 이후에서의 고충과 갈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경험이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고 추후 연구에 있어서 이번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를 관두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제도 개선을 통한 도움이나 이들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세우고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5).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 권용희, 최혜선, 안병환(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대화에 관한 연구. **방과후 학교연구 9.3** : 105-127.
- 금명자, 주영아, 김태성, 이자영, 김상수, 신현수(2005). 학교밖청소년지원모형 평가와 발전방향. **청소년상담연구** : 1-175.
- 김광병, 김수정(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분석-서울특별시 본청 및 25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1.2** : 143-163.
- 김경애(2016).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 1-28.
- 김미옥, 조아미(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을 통한 삶의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1** : 27-52.
- 김상현, 양정호(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선녀(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및 개정 현황과 개선방향 - 2019년 조례제정 및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10.3** : 173-195.
- 김소연, 이세림, 전종철(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가해: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상호영향관계. **청소년학연구 30.4** : 245-278.
- 김영희(2015). 검정고시를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경험 - 학교 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 131-157.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 1-29.

- 김위정(2012). 가정환경과 학교경험이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연구** 23.1 : 201-222.
- 김정숙(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여부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 27-49.
- 김정희, 김광병(2020). 조례분석을 통해 본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적 인정. **청소년복지연구**, 22.3 : 253-275.
- 김중우, 주수산나(2018). 학교상담현장에서 인식하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실제 : 근거이론 접근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2 : 107-124.
- 김현주, 박재연(2019).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학업중단 이전, 당시, 이후 경험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3 : 119-130.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373.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민윤경(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질적 중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240.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584.
-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514.
- 김희진, 서고운, 김미정, 류정희, 권지성(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중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233.
- 김희진, 백혜정(2020).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225.
- 남부현(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관련 생태체계 속 삶의 경험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 307-344.
- 명소연, 조진옥(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

- 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2 : 75-98.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 명재신, 윤성인(2017). 학교 밖 청소년 소재 파악 및 연결방안 연구-경찰청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 311-330.
- 민인철, 이용교(2012).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정책 연구. **글로벌청소년학연구**, 2.2 : 73-98.
- 박근수, 김민(2016).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의 건강실태 비교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2), 17-26.
- 박다현, 황정하(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 모델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4.1 : 71-94.
- 박동진, 이지연(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 1-26.
- 박병금, 노필순(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 47-78.
- 박선하, 강영배(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70 : 35-67.
- 박승곤, 김수정(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 233-257.
- 박재홍, 김성환(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17.1 : 11-20.
- 박지현, 황미영(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 1-24.
- 박창남(2010). 학교의 구조와 조직의 특성이 학교의 부적응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3 : 165-184.
- 박하나, 김성은, 김현수(202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경험 이해 : 학업중단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청소년연구**, 32.3 : 261-288.
- 배미경(2016). **학교밖청소년의 탈학교 의미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승호(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통합적 지원을 받은 학업중단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10.
- 서영우, 홍영균(2017).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방안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2** : 25-58.
- 성윤숙, 박병식, 박나래(2009).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3-10.
- 성윤숙, 이지혜(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52.
- 소수연, 안지영, 양대희, 김경민(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2.1** : 247-279.
- 손병덕, 오혜정, 임희수(2017).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개인 심리, 우울감, 가정생활, 또래관계의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와 상담복지지원 기관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 79-101.
- 송원일, 박선영(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 방안.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5.3** : 57-86.
- 안태용, 임혜경, 강선모(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 재구성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8.5** : 615-637.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오은진, 장희영(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168.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 141-168.
- 오정아, 오해섭(2018).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모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9.1** : 145-177.
-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 29-52.

- 오병돈, 김기현(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 31-54.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 125-154.
- 유진이, 신호민(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위한 경험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6.2** : 29-36.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박예슬(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480.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박예슬, 이지혜(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414.
-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박예슬, 윤희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676.
- 육성필, 남옥남, 박지란, 박성혜, 김은영(20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과정 탐색 및 학업 중단 인식 연구 - 강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0** : 535-561.
- 이경은(2022). 코로나19 시기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30.1** : 49-69.
- 이민경, 김보기(2013).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나타난 청소년기의 아이덴티티의 분석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5.2** : 83-101.
- 이선희(2015). 공교육 학업중단경험 청소년의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학업복귀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학교 담장 밖의 아이들, 또 다른 학교에 문을 두드리다. **청소년복지연구, 17.1** : 333-356.
- 이숙정(2019). 미국 거주 한인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발달과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근접 과정에 관한 연구: 브론펜브레너의 과정-개인-맥락-시간 모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2** : 451-475.

- 이유진, 박찬걸(2022).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66.
- 이주연, 정제영(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 239-267.
- 이지연, 조아미(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3.1 : 55-82.
- 이지은, 조혜영(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이음’ 참여 경험과 의미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7.2 : 31-60.
- 이혜은, 배영광(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주체적인 진로구성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청소년상담연구** 30.1 : 71-101.
- 장승희(2021).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8.2 : 41-63.
- 전주희, 김혜미(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8.1 : 293-313.
- 정문경(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인과관계 검증: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53 : 55-79.
- 정옥분(2019). **발달심리학 (전생애 인간발달)**. 학지사.
- 조규필, 김수진(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내일이룸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1 : 131-154.
- 조아미, 이진숙(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욕구. **청소년학연구**, 21(7), 145-170.
- 조아미, 임정아, 김남은(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156.
- 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284.
- 조윤정, 황소리, 오민아(2018).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질적연구. **교육문화연구**, 24.6 : 375-393.
- 조은주(2014). 통치와 잉여 :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질문들. **한국사회학회 사**

- 회학대회 논문집, 2014.12** : 331-332.
- 조진옥, 명소연(2016).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학교밖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 375-406.
- 조혜영(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 485-498.
- 조혜정, 홍다영(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 35-61.
- 주계순, 권일남(2018).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2** : 1-25.
- 주수산나, 김종우(2017).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의 전환 과정 :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6** : 499 - 522.
- 최지은, 이지원, 정다빈, 이해나, 김현경(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 사회적 발달단계와 성인초기 적응 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 37-52.
- 최홍일, 이래혁(2020).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0.52** : 1-27.
- 하여진(2021).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활용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2** : 329-353.
- 하여진(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정서 발달양상과 지원방안. **청소년복지연구 24.4** : 1-22.
- 하태욱(2015). 오피니언 : 청소년의 학교밖 배움과 성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열린충남, 70.** : 90-91.
- 한국심리학회(2017). 청소년 학업중단 실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8** : 190-190.
- 홍지선(2020).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과대학진학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 89-118.
- 황세영, 조성화(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58.

황정하(2022). 학교 밖 청소년 희망감과 탄력성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 : 373-398.

Creswell, J.W.(2005).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학지사.

Giorgi, A. (2004).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 장연집 · 박인숙 · 김미영 · 정승은 (공역). 서울: 현문사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f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

Ha Yeong Sub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Every year, 60,000 to 70,000 teenagers quit school and become out-of-school adolescents, and about 500,000 to 600,000 are estimated to be out-of-school adolescents, about 10 to 15% of the total 6 to 18 year-old population. The adolescence period is an important period for forming self-identity, and accordingly,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but more and more teenagers are alienated, and it is difficult to perform the development task of adolescence. Through this study, I became curious about the life experience of out-of-school adolescents and the resulting life satisfaction, and I would like to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to deeply understand out-of-school adolescents.

In this study,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to the lif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1 teenagers who had experienced out-of-school adolescents

in Korea, had a school suspension period of more than a year, and were 9 to 24 years old under the Framework Act on Youth. Data collection has been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since August 2022, and before the interview,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nformed of the outline and procedure of this study, the interview contents were recorded, and consent was prepar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and guardians. This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IRB review, categorized and classifi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results, and derived and analyzed the relevance of the categories based on the core categories of out-of-school adolescents' life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s data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ategorize the process before and after school suspension into dis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terpersonal conflict, pressure to enter college, and career concerns. When classified by keyword, it could be divided into self-reflection and self-improvement, family and friends, career and occupation, learning and academic, emotion and psychology, welfare and social support, and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c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various cases of out-of-school adolescents could be analyzed and explored in-depth, and it can be meaningful that it can be used as data to help improve and understand their awarenes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out-of-school adolescents more deeply and organize and apply appropriat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each stage or type through experiences before, after, and after school suspension. This will help improve the perception of out-of-school youth and help them develop necessary services and programs to adapt well as social members.

Key words : Out-of-School adolescent, Life Experience, Life Satisfaction, Phenomenological Method

<심층 면접 질문지>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하영섭

1.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기 전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

-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 삶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가정환경, 부모, 형제 관계는 어떠합니까?
- 2) 나, 가정, 학교, 또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3) 가장 좋았던 기억이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4)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 5) 학교를 다닐 때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2.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

-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 2)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정과 계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3)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4)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 5)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삶의 만족도는 어떠하였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

- 학교를 그만둔 후 생활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학교를 그만둔 후 가족 반응이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세요.
- 2) 학교를 그만둔 후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세요.
- 3) 학교를 그만둔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 4)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는 어떠했습니까?
- 5)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이나 필요했던 도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4.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미, 삶의 만족도의 차이

- 1) 학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주세요.
- 3)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까?

- 4)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 5)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주세요.
- 6)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7)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습니까?
- 8)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경험이 영향을 크게 미쳤으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9) 어른들이나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10)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칭찬이 있나요?

5. 기대하는 미래

- 1)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2) 미래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 3)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 4)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5) 학교 밖 청소년의 경험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6. 학교중단 이전과 이후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나 필요했던 점

- 1) 학교중단 이전에 학교생활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나 필요했던 게 있었나요?
- 2) 만약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있었다면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나요?
- 3) 학교중단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이나 좋았던 경험이 있었나요?
- 4) 학교중단 이후의 삶에서 좋았던 경험이나 필요한 도움이 있었나요?
- 5) 필요한 여러 도움이 충족되었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7. 학교중단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

- 1) 학교를 중단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에게 바로 알렸나요?
- 2) 알리고 난 후에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3) 학교를 중단한 후에 주변의 인식은 어떠했나요?
- 4)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 5) 그러한 주변의 반응들이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나요?

8. 학교중단 이전과 이후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

- 1) 학교중단 이전 학교생활에서 의미 있는 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주세요.
- 2) 학교를 중단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3)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4) 학교를 중단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 5) 학교중단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언제가 가장 힘들었고, 좋았는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9. 자신의 경험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친구나 후배에게 조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10. 인터뷰를 마치고 난 소감이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동 의 서

연구제목 :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 진행 중 인터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법정 대리인 성명(참여자과 관계)	서 명	날짜 (년/월/일)